

# 2006년

## 농장성적 분석 사례



정현규 소장  
한국양돈연구소

2006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가 사육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도축두수가 감소되고 2천년대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지난해 돼지 폐사로 인한 그 피해액이 '05년 보다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고, 생산원가를 맞추지 못해 폐업하는 농가들도 많이 생겨났다.

실제, 양돈생산 현장에서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 작년 한해 많이 출하한 농장은 MSY 21~22두가 되는 농장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농장은 전체 10%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 나머지 대부분의 농장은 평균 폐사율이 30%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다 보니 돈을 많이 번 농장도, 그렇지 않은 농장도 내부 데이터를 선뜻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매년 분석하는 일인데도, 올해는 자료 분석하기 조금 더 힘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표 1> 그룹별 종합 성적 비교

구 분	상위 30%			하위 30%			전체평균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상시모돈(두)	413.5	359.0	417.0	217.4	320.0	227.0	316.3	343.0	354.0
P.S.Y(두)	24.0	24.0	23.8	20.4	20.6	20.6	22.3	22.2	22.2
평균총산(두)	11.6	11.9	11.8	11.1	11.3	11.1	11.4	11.5	11.4
평균 실산(두)	10.8	10.6	10.6	10.2	10.2	10.0	10.5	10.3	10.2
평균이유두수(두)	9.8	9.9	9.9	8.9	9.1	9.0	9.4	9.5	9.5
비생산일수(일)	31.9	32.0	34.3	49.8	49.3	47.0	40.2	40.8	41.8
모돈 회전율(회)	2.44	2.41	2.40	2.29	2.27	2.28	2.37	2.34	2.33
분만율(%)	84.6	86.5	85.8	75.3	78.0	77.0	80.7	81.8	80.9

\* 2006년은 10월 기준 전산자료

지금부터 2006년 농장 성적 분석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각 농장에 도움이 되는 비교자료로 활용을 해 농장 생산성적 및 매출증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최근 3년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위 30% 농장은 평균 이유두수가 9.0두로 상위 30%에 비해 0.9두 적지만 하위 농가들의 생산성적은 약간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분만을 또한 상·하위 30% 농장 모두 1.2~1.7%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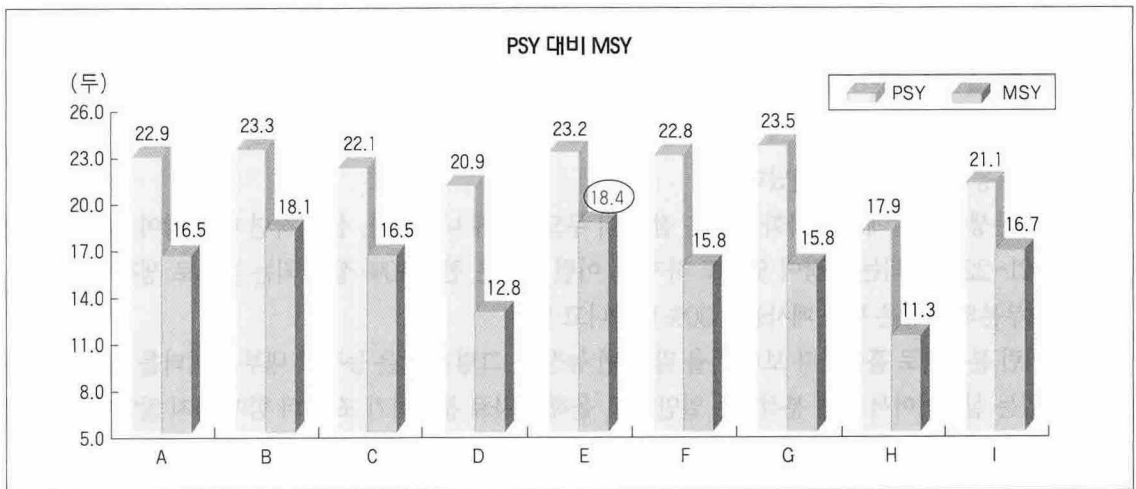
PSY 또한 2006년 상위 농가와 하위농가는 3.2두 차이가 나며, '05년 3.4두 보다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는 모든 100두 규모 농장을 기준으로 할때,

**“매출액 7,570만원의 매출 차이를 보이게 된다.”**  $(100\text{두} \times 3.2 \times 85\% \times 278,325 = 75,704,400\text{원})$

참고 : 2006년 전국 평균 시세는 3,667원(\*자료출처 : 대한양돈협회)/지급율 69%, 110kg 보정.

<그림 1> 모든당 이유 두수 대비 판매두수



위 A~I 농장의 2006년 모든당 이유 두수(PSY) 및 모든당 판매두수(MSY)를 보고 있다. E농장의 경우 MSY 18.4두로 9개 농장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H농장은 PSY도 낮고, MSY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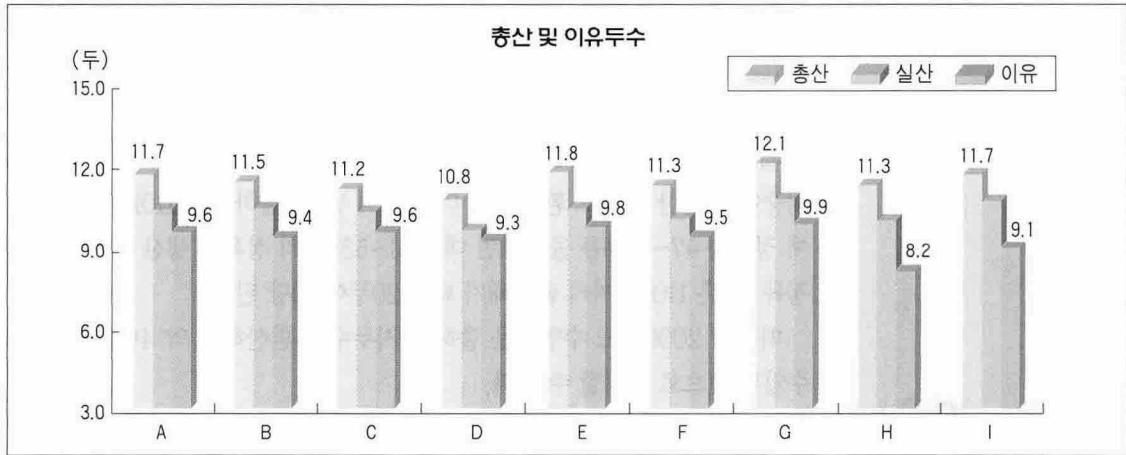
E 농장의 경우 '04, '05년에 지속적인 소모성 질병으로 폐사가 40~50% 나타났었지만, 지속적인 현장 개선 및 기록의 강화, 기본 사양관리에 충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노력한 결과 성적이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05년보다 MSY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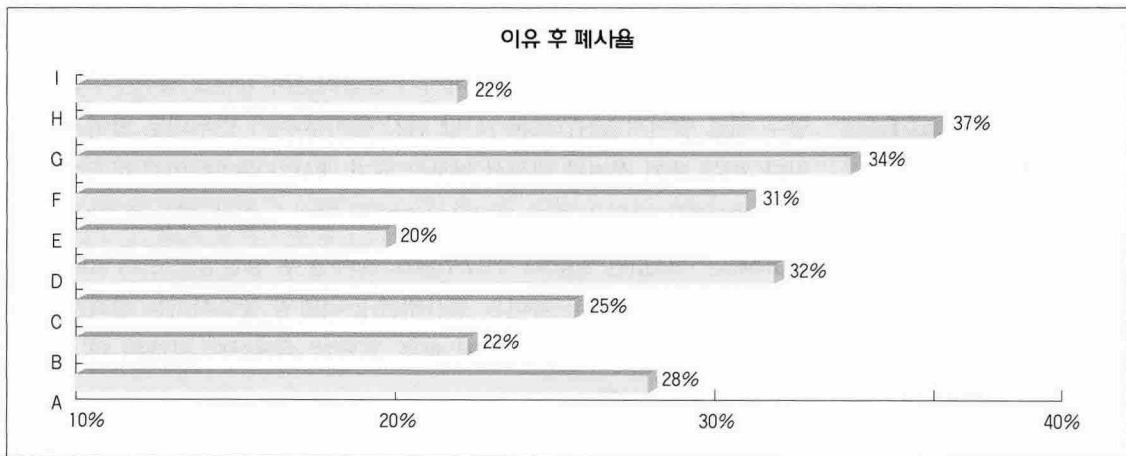
다음은 A~I 농장들의 총산대비 이유두수를 보여준 그래프이다.

G농장은 9개 농장중 총산 12.1두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H농장이 이유두수 8.2두로 가장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총산 대비 이유두수 변화



<그림 3> 농장별 이유 후 폐사율



A~I 중 E 농장은 '05년 폐사율 40%에서 '06년 폐사율 20%로 약 20%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E농장은 모돈 280.1두, MSY는 18.4두이다. '05년 대비 MSY 3.68두가 증가하였으므로, 이 농장은 (2006년 전국 평균 시세는 3667원(\*자료출처: 대한양돈협회)/지급율 69%, 110kg 보정) = 3.68두 × 280.1두 × 278,325원 = 286,888,503원.

즉, 2억 8천만원의 매출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생산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인건비, 약품비 등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 또한 생산 성적을 올리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장의 생산성적 증가와 폐사두수를 줄이는 길만이 농장의 매출증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이라 할 수 있고, 우리 농장에서 어느 구간에서의 폐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지와 생산 성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농가의 매출 증가를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양돈**